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12.11.(목)/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 김엄지 실장(051-797-4776)/ 한다희 연구원(051-797-4633)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북극 예외주의를 넘어: 비북극권 국가의 협력 역할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 메인세션 ‘북극해정책포럼’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12월 10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북극 예외주의를 넘어: 비북극권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북극해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의 첫날 정책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KMI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미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필립 라포르툰(Philippe Lafortune)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 △안티 니에멜라(Antti Niemelä) 주한핀란드대사관 부대사 △토르 하우그(Tor Haug)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해 각국의 북극 정책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4회를 맞은 북극해정책포럼은 북극권과 비북극권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북극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특히 올해는 북극협력주간 10주년을 기념해 참여 규모가 한층 확대되었다.

세션 좌장을 맡은 이미혜 교수는 지난 10년간 포럼이 한-북극 협력에 미친 의의를 되짚으며 향후 포럼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이어 각국의 북극 정책 방향과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필립 라포르툰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는 이 포럼에 대해 “한국이 단순한 옵서버를 넘어 비(非)북극권 국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포럼에서 해운, 환경, 원주민 협력 등 실질적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북극 외교 정책과 4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소개하며, “캐나다는 강력한 규범을 기반으로 한 환경 보호와 원주민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띠 니에멜라 주한핀란드대사관 부대사는 이 포럼에 대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극권과 비(非)북극권 국가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쇄빙 기술을 보유한 핀란드가 캐나다, 미국과 체결한 ‘ICE Pact(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 Pact, 쇄빙선 협력 협정)’을 소개하며, 이 협정은 “협력국 간의 역량과 수요를 연계하여 북극에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의 향후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주요 조선 파트너라며, 조선 강국인 한국과 첨단 쇄빙선 기술을 보유한 핀란드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르 하우그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포럼이 양국 간 북극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올해 발표한 새로운 북방정책 ‘High North(하이 노스, 노르웨이 북부 및 북극 지역의 균형·지속가능 발전 전략)’를 소개하며, 이는 과거의 경제·지역 개발 중심 정책을 단순히 확장한 것이 아닌 북극에 대한 국가 비전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해양과학 연구, 친환경 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을 제시하며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패널들은 각국이 추진하는 북극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비북극권 국가인 한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급변하는 북극 환경 속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북극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KMI는 국제사회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북극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김
업지 실장(umjikim@kmi.re.kr) 또는 한다희 연구원(dhhan@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4회 북극해정책포럼 사진

